

차별과 배제... 한국 우생학의 과거·현재·미래

우리 안의 우생학

김재형 외 지음

우생(優生)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유전 형질을 보존하여 자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19세기 등장한 우생학은 찰스 다윈의 '자연도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프랜시스 골턴의 '인위 도태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전문가들은 신간 '우리 안의 우생학'을 통해 과학사와 의학과, 의료사회학, 장애사, 젠더연구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에 도입된 우생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우생학적 사고방식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재한 부산대 교양교육원 교수와 박지영 인제대의 대 교수는 프롤로그에서 한국 우생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신간 집필의도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안의 우생학”은 우생학의 비윤리성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생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려한다. 우생학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구분하는지, 그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건,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한 양태를 밝히고 문제 삼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라는 부제를 붙인 신간은 크게 ‘민족개조의 염원’과 ‘과학과 국가의 이름으로’, ‘격리되고 배제된 이들’ 등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우생학이 도입되고, 1930년대 조선인 의사 중심의 조선우생협회

주도와 식민당국의 지원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인공수정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비혼모’에 대해서도 살핀다. 2부에서는 해방 이후 우생학이 가족계획사업과 동성동본 불혼(不婚) 제도, 모자(母子)보전법 제정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다룬다. 3부에서는 한센인과 정신박약·간질환자, 부랑부녀(浮浪婦女) 등 집단수용시설 안팎에서 우생학의 이름으로 분류, 격리, 단종 당했던 어두운 역사를 들춰낸다. 소록도에 수용돼 강제로 정관 절제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은 2011년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현숙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연구소 학술연구팀장은 ‘한국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에서 모자보전법 제9조(강제 불임수술 조항)를 살피며 정부의 장애인 재생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국가 돌봄과 지원이 빈약해 양육 책임을 장애인 가족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 복지의 어두운 현실도 문제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심성 속에 녹아있는 우생학적 사고의 위험성을 선찰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우생사회”인 한국에서 미래 우생학적 사고는 어떻게 변화할까? 2000년대 들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되며 세포유전학과 산전(産前) 진단 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영아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성의 선택속 우생학의 그림자’에서 ‘초이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인종학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역별·직업별로 조선인 체격측정을 실시했다.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부부 5쌍의 유리관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맘’을 통해 인공수정·산전 진단기술 등 미래에 도래할 문제점을 제기한다.

“인간의 출생에 개입할 수 있는 의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경계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김재형 교수는 에필로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적 낙관론과 인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욕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우생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탈우생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동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탈우생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생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우생사회를 살게 되었는지 진단하는 것이다.” <돌베개·1만9000원> /송기동 기자 song@

새로 나온 책

▲반계수록1=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로 불리는 반계 유흥원의 대표작 ‘반계수록’의 원문을 현대어로 풀어냈다. 그의 사유들은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등으로 이어지는 중농학과 실학의 주요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양전 규정이나 근역, 전세 부과, 토지제도에 대한 논설과 부세 부과와 당위성을 둘러보고 ‘토지제도’의 당대적 현실을 소개한다. 반계의 대표작인 이 책은 조선 후기를 수놓았던 실학사상의 원천으로 손꼽힌다. <창비·4만2000원>

▲계엄=서울의 한 대학에 부임한 일본인이 포착한 한국인의 초상. 도쿄 이자카야에서 한국 유학생 ‘나’는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자리에서 유학생 양 군으로 부터 한국에 가본 적 없다는 질문을 받고 저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풀어 놓는다. 얼마 뒤 한국 대학으로부터 객원교수 초빙장을 받고 일본어 강사로 부임하지만 군사정권 하 서울의 모습을 마주한다. 서울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역사의 격동을 그렸다. <정은문고·2만1000원>

▲이성=철학사를 거쳐오며 이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됐는지 변천사를 고찰한다.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로서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자 도구인 ‘이성’을 들여다보고, 그 개념의 변화 과정에 천착한다. 이성에 대한 철학적 관점들을 열거하기보다 특정 환경에 속한 개념어들의 사용 방식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념



이 시대 언어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것처럼 이성 또한 정형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북캠퍼스·1만7000원>

▲어느 날 내 안의 아이가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어느 날 자비네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연인인 미하엘이 사달라 부탁했던 소시지를 깜박한다. 자비네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 했으나 미하엘은 화를 낸다. 그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내면 아이’를 꺼냈다.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각인에 해당하는 ‘그림자 아이’가 나타나 분노한 것이다. 이는 어릴 적 다양한 요구를 거절했던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형상화된 존재다.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법의 탄생부터 재판 과정, 법률 구조에 이르기까지 삶과 밀접한 법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인종차별 문제, 이주민, 노동자의 휴식권과 직장 내 괴롭힘,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 위기와 얽힌 소송 등 법리적 이슈 중 뜨거운 감자들을 다룬다. <철수와영희·1만5000원>

▲국어 탄탄 공부법=막막한 국어 공부법에 대해 알려준다. 국어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고생이 가장 많이 묻는 국어 고민, 국어실력을 높이는 17가지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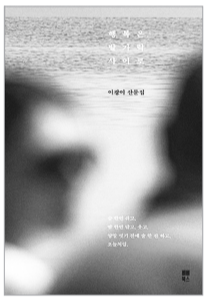
공부법, 하루 10분 실천하는 국어 습관 등 세 파트에 걸쳐 성적 향상법을 소개한다. 내신국어 공부법이나 듣기 훈련의 중요성, 질문하며 읽기 등을 강조한다. <보라빛스·1만8000원>

▲나는 크고 아름다워요=커다란 꿈과 웃음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어른들은 크게 될 아이라며 그를 칭찬했지만 어느덧 ‘너는다 컸잖아’, ‘다 큰애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등 무시코 빨는 말들이 상처가 된다. 아이가 타인의 시선과 언어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수 있을까? 자기 긍정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함께 나아간다. <책읽는곰·1만7000원>

해학과 깨달음이 있는 맛깔스러운 산문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

이광이 지음



“아침에 세수하는 손가락 사이로 왔다가 저녁에 양말 벗는 발가락 사이로 하루가 가버린다 하더니, 세월이 참말로 그렇지 않아요?”

정월 어느 날, 아들의 말에 팔손이 넘은 노모가 답한다. “아야, 바닷가 펄밭에서 자잘한 칠게 잡아 놓은 통발 있지? 그것이 얹어지면서 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잖아. 얼마나 빠르냐? 설날 무정을 열면 삼백예순 날들이 저 칠게 마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 그리고 노모는 덧붙인다. “그 손가락 발가락 얘기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저녁 때까지 많이 걸으라는 얘기 같다”고.

이렇게 재미있는 산문집이구나. 전직 언론인 이광이 산

문집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는 한 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 없다.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한이 있다. 그러다 ‘아’ 하는 깨달음이 오고, 멍멍해지고 만다. 여기에 맛깔스런 전라도 사투리까지 첨가하니 읽는 맛이 쏠쏠하다.

책에 실린 60여편은 한겨레 ‘삶의 창’ 연재분과 지난 10년간 써 온 글들이다. 작가 소개 글에 “해학이 있는 글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첫 글 ‘해어 소수자의 길’부터 빵 터진다. 주변머리가 월반은 남야 ‘오할스님’으로 불리는 그는 어느 날부터 가발을 착용하지만, 결국 ‘모(毛)밍 아웃’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오늘날에도 바람이 두피에 직접 스킨케어” 삶을 살고 있다.

“삶은 고고하지 않다. 삶은 베토벤 작곡에 이미지 노래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저자는 삶이 막힐 땐 고전을 읽는다. 읽다가 막히면 “쓴 사람도 있는데 읽지도 못하냐?”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나가고 허균의 ‘한정록’이나 ‘공자가어’의 공자와 자로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또 조계종에서 일하면서 연을 맺은 도법스님과 주고 받은 대화를 비롯해 불가의 이야기는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전을 귀신 같이 잘부친다고 해서 ‘전신(煎神)’으로 불리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춤추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영당이 같은 휘어진 기둥”을 만나는 개심사에, 강진의 월남사지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어진다. ‘가을처럼 좋은 영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주연의 ‘마지막 사중주’와 영화 속에 흐르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4번’, 멘델스존의 ‘무언가’의 선율에도 귀 기울이게 된다.

책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엄니 최봉희 여사도 인상적이다. 1958년 ‘자유문학’으로 등장했던 엄니는 세월호 참사 후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별이 되어 떠난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이웃이 되기도 한 마음”으로 57편의 시를 쓰고 묶어 ‘5·18 엄마 4·16 아들에게’를 펴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 한희원미술관에서 4호짜리 강렬한 붉은 장미 한점을 사 집에 걸어두고 “그림이 사 같지 않냐”며 흐뭇해하던 엄니는 2021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베베북스·1만6800원> /김미은 기자 mekim@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